

연변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두만강 유역어와 무주촌 지역어의 움라우트를 중심으로-

소 강 춘
(전주대학교)

So, Kang-chun. 1999. A Phonological Study on Yanbian Areal Dialect. *Linguistics* 7-2, 241-26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mlaut of Tuman river dialects and Mujuchon dialects: the former is spoken in the area located across from Yukjin, North Hamkyongbuk-do, and the latter is spoken in Ando-hyon. Umlaut is a universal phonological phenomenon in Korean, even though the focus of assimilation and the constraint of inserted consonant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areal dialect. This study shows that o/u umlaut is rare in Tuman river dialects and that the constraint of inserted consonants is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areal dialects of South Korea. Mujuchon dialect clearly supports this idea.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dialects of Hoeryongbong, and Milgang are different from those of Wolchong, Pukheung, and Rogwa. (Jeonju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목적

이 연구는 북한의 육진 지역과¹⁾ 두만강을 사이하고 있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5개 지역어와²⁾ 1938년에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에서 집단 이주한 안도현 무주촌 마을의 언어에서³⁾ 실현되고 있는 움라우트 현상에 대해

* 이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방대육성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1) 조선조 세종 때 김종서에 의해 개척된 경원(慶源), 경흥(慶興), 부령(富寧), 은성(穩城), 종성(鍾城), 회령(會寧)의 6개 진(鎭)을 지칭하고 있다.

2) 두만강 상류로부터 화룡시의 룡파, 용정시의 북흥, 도문시의 월청, 훈춘시의 밀강과 회룡봉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어들을 '두만강 유역어'라 칭한다.

3) 무주촌은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에서 집단 이주해온 사람들의 언어로 '두만강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움라우트는 동화주 /i, y/에 선행하는 후설모음들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역행동화 현상으로, 국어의 음운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중요한 통합적인 음운현상이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고, 많은 연구업적이 나왔다.⁴⁾

그 중에서도 최명옥(1987)에서는 ① 동화주의 음운론적 특징, ② 피동화주의 음운론적 특징, ③ 개재자음의 음운론적 성격, ④ 움라우트와 운소와의 관계, ⑤ 움라우트 예외들에 대한 설명, ⑥ 움라우트와 규칙 적용 순서 등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 교수는 그 동안 움라우트에 대한 논의가 이들에 치우쳐 있었고, 움라우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함경북도 방언을⁵⁾ 반영한 두만강 유역어와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 지역어를 반영한 안도현 무주촌 지역어의⁶⁾ 움라우트 현상을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남과 북에서 실현되고 있는 움라우트의 지역적 특징과 두만강 유역어의 지역적 분화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움라우트 현상의 정밀화를 꾀하려 한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최명옥(1987)의 주요 문제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밝히고, 두 방언권에 도입된 움라우트 현상이 동일한 기제(mechanism)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가를 주목하려 한다.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언 연구는 한반도 전 지역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언어 현상의 유·무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고,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언어규칙이 적용된 출력부 자료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규칙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유역어'와 구별하기 위해 '무주촌 지역어'라 칭한다.

4) 움라우트의 일반론은 이승녕(1935), 정인승(1938), 김완진(1963), 이병근(1971), 김수근(1978), 도수희(1981), 최명옥(1980, 1982, 1988, 1989), 최진승(1986), 최임식(1984), 김영배(1985), 소강춘(1988, 1995) 등에 미룬다.

5) 필자는 북한의 함경북도 방언을 조사하기 위해 두만강을 사이에 둔 연변지역의 마을들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했다. 1.2 자료의 성격에서 논의되겠지만 이 지점들의 언어는 함경도 방언이라 칭해도 큰 무리가 없다. 다만 현재 이 지역들이 중국 조선어 규범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중국 두만강 유역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6) 권병로(1987), 전광현(1993)에서 무풍 지역어의 성격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접촉방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써 규칙을 정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⁷⁾

1.2. 자료의 성격

분단 전의 함경북도(은)는 분단 후에 함경북도의 서북 일부지역이 양강도에 편입되었다. 함경북도방언이라고 한다면, 함경북도 전 지역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방언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쪽의 마을을 조사함으로써 강 건너편에 있는 함경북도방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⁸⁾

두만강은 하류로 가면 상당히 폭이 넓어지지만 상류로 가면 조그만 개울을 이루고 있다. 특히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양쪽 마을 사람들은 70년대만 하더라도 왕래하는데 거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⁹⁾ 따라서 두만강 북서쪽 중국에 있는 조선족 마을 토박이 화자들의 언어는 함경북도 육진 지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¹⁰⁾

조사지점과 제보자의 인적사항, 조사일정, 지도를 제시한다.

7) 필자가 통계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은,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상당한 어절이 조사·정리되었기 때문에 규칙의 정밀화에 상당한 설명력을 부여할 수 있었다.

8) 그 동안의 북한 방언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사람들의 자료에 의지했다. 비록 그런 제보자들이 어릴 때의 기억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언어사용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중국 연변 화자들보다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젊었을 때는 양쪽 마을을 자연스럽게 왕래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특히 해방이 되면서 중국과 북한(중국에서는 북조선으로 칭하고 있다)의 국경이 정해질 때, 각각의 거주지에 따라 양쪽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경작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증언은 양쪽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를 의미한다. 현재도 양쪽 마을 사람들의 상당수가 친척관계에 있다. 상류로 가면 넓은 들을 가로지르는 조그만 개울물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정검다리로 건너면서 서로 빨래터를 같이 사용할 정도의 강폭을 유지한 경우도 많다.

10) 실제로 많은 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에 건너왔거나, 아버지 시대에 건너왔기 때문에 언어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1> 조사지점, 제보자 인적사항, 조사일정

조사지점	인적사항	조사일정	비 고
화룡시 로과진 蘆果村	全今玉(66) 全連玉(64) 崔壽永(62) 姜明月(56)	'96. 5. 13 - 5. 21	북한의 무산과 홍암 사이
용정시 삼합진 北興村	蔡貞子(69) 蔡乙順(72)	'96. 6. 17 - 6. 26	북한의 회령군 노령 의 맞은 편
도문시 월청현 馬牌村	韓民光(82) 徐今順(67) 李昌主(76) 崔順愛(75) 崔珍孫(71) 崔善玉(69) 李世鳳(81) 安生今(69)	'96. 10. 21 - 10. 30	북한의 鍾城과 南陽 사이
훈춘시 밀강현 密江村	金東善(69) 康雲鶴(70) 朴善玉(69) 金今順(67) 金桂順(62)	'96. 5. 27 - 6. 5	북한의 은성군 셋별 마을 맞은 편
훈춘시 경신현 回龍峰	金乙永(72) 金大鉉(63) 金福順(59) 金今蘭(56)	'96. 8. 19 - 8. 27	북한의 경흥과 아오 지 사이
안도현 소사하향 茂朱村	金良順(69) 金大夏(72) 金京夏(68)	'96. 4. 26 - 5. 1	

위 <표 1>에 제시된 조사지점에서 안도현 무주촌은 다른 5개 지점과는 차이가 있다. 무주촌은 1938년에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에서 집단 이주하여 이루어진 마을이다.¹¹⁾ 지리적으로도 <표 2>와 같이 두만강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족으로¹²⁾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무주촌 지역어는 함경북도 언어 중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언어-여기서는 두만강 유역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¹³⁾

11) 소강춘(1998:188)에 1차부터 5차에 걸친 중국 이민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무주촌은 제 2차 집단이주 때 형성되었다.

12)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55개 민족을 소수민족이라 칭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설립될 수 있었다. 다만 200만에 달하는 중국 조선족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현지 조선족 지도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13) 필자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 것은 전북방언 화자들이 언어적으로 방언섬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전북방언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피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다.(소강춘 1998)

<표 2> 두만강 유역 지도



1.3. 계량적 분석

현지 방언조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방언조사질문지(1980)를 기본으로 사용했고, 중국의 문화와 삶의 방식 등에 대한 많은 자연발화를 채록·전사했다.¹⁴⁾ 전체적으로 전사된 자료는 약 34,200여 어절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5,700여 개의 어휘가 지역별로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질문지를 제외한 자료들은 지역별로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서로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 내의 자료들이 해당 음운현상에 대해 투명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일은 해당 음운현상의 생산성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자료 조사는 필자가 '96년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진행했다. 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할 드린다.

여기서 설화나 전설과 같이 기존의 방언조사에서 많이 다루는 자료를 채집하지 못한 것은 현지 제보자들이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15) 물론 상당수의 자료들은 자연발화를 채록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의 자료보다는 훨씬 다양한 자료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 어휘수는 회룡봉 50,000, 밀강 6,600, 월청 5,200, 북흥 6,200, 로과 5,800, 무주촌 5,400여 개다.

2. 형태소 내부에서의 음라우트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언어 속에는 통시적인 언어 변화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방언의 선행시기 언어자료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지역적인 방언차를 살펴봄으로써도 일정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었던 음라우트의 양상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음라우트에 대한 역사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¹⁶⁾

2.1.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

두만강 유역어에서 [a, ə, u, o, i]와 [i, y]가 직접 연결되는 어사들은 중앙어나 남부방언권에 비해 아주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 그 다양성을 정밀화하기 위해 표준어에서도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와 표준어에는 개재자음이 있지만 이 지역어들에서 개재자음이 없이 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 이중모음이 단모음화 되어 실현되는 경우, 체언의 단독형에 접미사 '-이'가 삽입되어서 실현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술하려 한다.

2.1.1. 중앙어에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

중앙어의 형태소 내부에서 개재자음이 없이 후설모음 /a, ə, u, o, i/와 /i, y/가 직접 연결되는 어사들 중에서 표면음성형으로 전설모음 [ɛ, e, ü, ö, i]가 [i, y] 앞에 직접 실현되는 어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sinüi~sinui<p>(누이); süyəm<m> süyämira<m> arət'eksüyəm<m>
k'ösüyämije<m>(수염); tüyämiji<m>(두엄)¹⁷⁾

16) 최명옥(1988)에서는 음라우트의 통시적인 현상과 공시적인 현상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교체의 유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 사동·피동어미 '-이'에 의한 음라우트와 부사형어미 '-이, -히'에 의한 음라우트도 통시적인 현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17) 여기에 제시된 자료들은 표면음성형이기 때문에 음성형임을 표시하는 []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편의를 위해서 예문으로 제시된 경우는 생략하기로 한다. 제시된 자료에서 <h>는 회룡봉, <k>는 밀강, <w>는 월청, <p>는 북흥, <r>은 로과, <m>은 무주촌 지역어를 지칭한다. 또한 <h4w3>은 회룡봉에서 4번, 월청에서 3번 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는 어사들의 구분 표시로, '·'는 지

(1)은 필자가 조사한 자료 중에서 '[V, -Back]+(i, y)'의 구조로 실현된 전체 예들로 3개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누이'를 제외한 '수염, 두엄'은 모두 무주촌 지역어에서만 전설모음 유지형으로 실현되고 있어, 이 현상의 비생산성과 지역적 편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2)는 (1)의 예들에서 이 현상을 외면하고 있는 변이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 (2) k^hinnui<r> nuiga<hpp> nibi<p>(누이); semi<r> kurisemi<hr>
 k^hos'emigo<kp> k^hoswemi<h> t^heks'emi<r>(수염); tu:əmi~t^hə:m<h>
 tuəm<hwwr> təmnənda<r> tə:m(명천)<kwwrp> tə:mi<pr>

(2)의 예들은 '누이, 수염, 두엄'이 들어가서 실현되는 다른 예들이다. 먼저 '누이'가 들어간 형태 중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시누이'는 '[sinubi] <kkww> [sinibi] <k3wh> [sinubi] <k3m3> [sinibi] <hw> [sinui] <kpm>'로 변이를 보인다. 따라서 '(시)누이'는 '(시)누비'형이 기본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1)의 [sinüi]는 북흥 지역어에서만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어, 통시적인 음라우트의 비생산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수염'은 '[se:mi] <p4w4r4k3> [sue:mi] <hk3> [swe:mi] <h5kk> [siyəmi] <m> [siyəm] <m> [süyəmi] <m> [ne:mi] <k> [nyə:mi] <k> [yə:mi] <kh>'와 같이 실현되고 있다. 이 중에서 '네미~너미~여미'는 '수염'의 고행이고 공식적으로는 존칭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세미~수애미~췌미'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사여미~시염~쉬여미'는 무주촌 지역어에서만 실현되고 있어, 무주촌 지역어와 두만강 유역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수염, 두엄'이 무주촌 지역어에서 음라우트가 실현되고, 두만강 유역어에서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두만강 유역어에서는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는 음라우트를 외면한다고 할 수 있다.

- (3) ai<kp3>; egi<hkwwpprm4>; egi(며느리)<kwr4mm> : oi<kwprrm4>;
 oine<ul<kwr>; oijap<ci<m> oijap<ci<rwwm> oijəlgunget<rr>; ois'əmi
 <w>(오이)

역적이거나 기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이들 지역어는 성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음라우트와 관련해 성조가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했다.

(3)의 '아이'는 남부방언에서는 '아이>에'로 축약을 보이거나, '아기→에기'로 음라우트를 보이는 예들이고, '오이'는 '오이>외'로 축약을 보이는 예들이다.(소강춘 1989:159)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남부방언에서 활발하게 실현되는 축약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아이'로만 실현되고 있다. 개재자음이 있는 '아기'는 모두 '에기'로 실현되고 있다.¹⁸⁾

위의 예들을 통해서 이 지역어들에서는 개재자음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음라우트를 의면했고, 축약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약 1)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개재자음이 없으면 음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다.

2.1.2. 이 지역어에서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

그런데 표준어에는 개재자음이 있지만, 이 지역어들에서 개재자음이 탈락되거나 다른 형태로 어형이 변화되면서 개재자음이 없는 환경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4) abai<hkpr> noabai<k> harabai<m>¹⁹⁾(할아버지); madabaijip<pp> kʰi:nabai<r> kʰinmadabai<r> tulčʰmadabai<rpp> čaginmadabai<r> wemadabai<rk>(큰아버지); siabaiga<krmm> sʰiabai<mm>(시아버지); əmai<r> kasiəmai<r> sʰiamaiga<m> urəmai<w>(어머니); čagimai<p>(작은 어머니); aʃimaiga<kr>(아주머니); aŋkʰai<krmm>(아내)²⁰⁾; kaŋčʰai<hhw3pr> kwaŋčʰai<hkrw>(삼)²¹⁾

(4)의 표준어형은 '할아버지, 큰아버지, 시아버지, 어머니, 아주머니, 아내, 삼'이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개재자음이 없이 실현되는 어사들이 기본어휘

18) 이 지역어에서 '아이'와 '에기'는 의미가 다르다. '아이'는 '가즈난 아이'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를 의미하지만, '에기'는 '에기네'와 같이 결혼한 여자 중에서 아기가 없어 'xx네'로 부를 수 없는 여자를 지칭한다. 박충구(1997:211)의 각주 41)에서 '어린애'에 대한 자세한 의미구분이 되어 있다.

19) 무주촌의 [harabai]는 남부방언권의 할아버지형을 반영한 것이다.

20) 박충구(1998)에서 '안+간+이'로 분석하고 있다.

21) 이 어사는 한어(漢語)의 '삼'을 의미하는 '鋼錘[gangcha]'의 음운 차용한 것이다. 이는 언중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음운론적 환경이 지금의 논의와 일치되기에 여기에 예로 들었다.

로 선정되어야만 한다. 이들도 개계자음들이 없으면 음라우트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제약 1)의 지배를 받는다.

2.1.3. 접미사 '-이'가 첨가된 경우

다음으로 이들 지역어에서는 '명사+이'처럼 접미사 '-이'가 첨가되는 예들이 아주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다.²²⁾

- (5) k^hoi(코(鼻)+이); moi(모(머)+이); čoi(조(粟)+이)²³⁾; čaŋbai(긴바(繩)+이)
 <r> mokp'ai(목 바)<w>; noi(노(繩)+이)<kpw>; p'ai(파(蕪)+이)<km3>;
 čai(자(尺)+이)<p>; moi양털옷<p>; moŋnoi(목매)<pp> mono'i<p>

(5)에서도 음라우트는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어나 남부 방언권에서 단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6)의 예들이 이들 지역어에서는 두 모음의 연속체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V+접미사 i' 구조가 생산적인 이 방언권의 영향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 (6) u<k3wp> ue<hk5 w5 p3 r4 m5> uro<khhwmr>; up'urak<mm> ulla
 <m> u'llo<k> utč'əbəlge<h> ummal<ppkhww> ummul<w> ut'on
 <wkk>; ui<kp> čibogui<r>; ŋe is'imən<m>; ugejip<m>(위) : tu<h3k5
 w5p3r7>; tui<hhkkpr>; twi<hk3w>(뒤) : č'ui<hw>; č'wi semiri<w>;
 č'ü<wp3m>(취)

(6)의 예들은 표준어에서 '위, 뒤, 취'로 표기되고, 단모음 [ü]나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예들이다. 그런데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주촌 지역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tu~tui~twi], [u~ut~ui~ü~uge], [č'ui~č'ü~č'wi]와 같이 변이를 보인다. '위'와 '뒤'는 [u]와 [tu]로의 실현이 기본적이고, '취'는 [č'ü]로의 실현 빈도가 높다.

이들의 발달과정은 아래와 같이 설정될 수 있을 것 같다.

- (7) 위 : uy > u 뒤 : tuy > tu 취 : č'uy > (č'u)
 > (wi) > (ü) >twi > (tü) > (č'wi) > č'ü

22) 최진승(1983)의 견해에 따라 '접미사'로 처리하기로 한다.

23) '코, 모, 조'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고르게 실현되기 때문에 출처를 생략한다.

(7)은 '위, 뒤'와 '취'가 서로 다른 변화를 겪었음을 시사한다. 즉 '위, 뒤'는 [u]형으로 실현이 일반적임에 반해, '취'는 [ʰu]형이 일반적이다. 이는 선행 자음에 따라 /uy/가 다른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곽충구 1994:296) 따라서 이 지역의 선행시기에는 'V+i/y'의 형태가 실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2.1.4. 개재자음이 탈락된 경우

앞에서 이 지역어들에서는 개재자음이 없으면 움라우트도 일어나지 않고, 축약도 일어나지 않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개재자음이 있으면서도 이들이 생략되어 '[+back, V]+i/y'의 연결체로 실현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이들이 움라우트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 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 환경에서 주로 탈락되는 음들은 'o, ɫ, ɾ, ʰ' 등이다.²⁵⁾

- (8) ㄱ. pai<h3kw5r4> paŋa<k4wwmm> paŋɛ<kmm>(방아); kumai<pw> kuməŋ<kkwmm> kuməŋi<wr4p> kumə<rr> kumək<rw> kungga <hwp4> kunggi<kwmm> ~kungu<hm> kunge<hhpr> kumu<rr> kunyəŋ<m>(구멍); k'oi<p> pa:goi<r> pa:k'oi~pa:ik'o'i<p> set'əgoi <r> čalgugoi<rp>(방아공이); toieda<p> toilli<p> mult'oida <w> toi<p> mult'o:eda<p> mult'oŋi<kwwr> mu t'oŋo<m3> mult'əŋu <p> mult'unggi<r> mult'əŋjɛ<hk> t'əŋjɛdoŋi<r>(둥이); yoi(용이)<h>
- ㄴ. kamai bonda(가만히)<m3>; mai(많이)<kprm4>; kesai(거위)<m>; ro:bai<p>²⁶⁾; halməi(할머이)<mm>; masəi<rr> ma'səni<hr>(재봉틀)²⁷⁾; čuməi(주머니)<wmm>; əməi<prm5> šiaməi<m> s'iaməi<m>(어머니); sewəi(삼춘)<rr>; kəŋgəi(건건이)<m>

24) 곽충구(1994:94-101)에서 변이음 수준의 [u]는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 음운 /w/의 설정은 어렵다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 [u]는 /uy/→[u]로 얻어진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육진방언의 w-계 이중모음은 /we, wɛ, wə, wa/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위, 외'는 [ui, oi]로의 실현이 일반적이다.

25) 이 지역어들에서 이 자음들의 탈락은 생산적이다. 특히 'o, ɫ'의 탈락이 생산적인데 이들은 비모음을 이루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곽충구 1997 참조) 여기서는 분명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생략 표기한다.

26) 한어의 老板[laoban] '주인, 상점의 주인, 지배인'에서 차용된 것이다.

27) 러시아어 차용어이다.

- ㄷ. maiyo<r> mais'iyō(존)<k> muru maips'o<p> maigo<w> mainda<r>
 mais'o<k> maiji<k> maera<k> : masigi pap'uda<k3> masida
 <hwkkp3r> masera<kwmm> maset'a<hkwr>(마시다); yəsai<w>
 ㄹ. noi<krmm>(四); sei<wrm3> sü:nsai<mm>(三)

(8)은 중앙어나 이 지역어들에서 각각 'o, ㄴ, ㅅ, ㅎ'이 개제되었던 예들인데, 개제자음이 탈락되어 '[+back, V]+i/y'의 형태로 실현된 예들이다. 이들에서도 음라우트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ㄴ, ㄷ)처럼 'ㄴ, ㅅ'이 탈락된 예들은, 이들이 탈락되지 않은 어사들에서도 음라우트를 외면하고, 탈락된 어사들에서도 앞에서 세운 제약 1)에 의해 음라우트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ㄱ)처럼 'o'이 탈락된 경우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개제자음 'o'이 음라우트의 제약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구멍이, 꿩이, 콩이, 동이, 봉이, 공기, 용이, 장농이' 등은 음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면서도 음라우트를 외면하는 예외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제약 1)의 조건에 맞는 변이형을 가지는 어사들은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²⁸⁾ 그런데 (9)에서는 음라우트가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제약으로 설명하려는 견해는 채택하기가 곤란하다.

- (9) ㄱ. kəmdeɪ(손)<r> soŋdeɪ<r> kək'eido<k> k'ak'ci ~k'ak'ci(쇠스랑)<w>
 tolmeɪ<r> t'ogijci<r> čudii<k> čudini<h> čudini<k> če:mjari ~
 sogomjci(잠자리)<r> ko'yci<r> teiri(이름 정일이)<h>
 ㄴ. aŋk'oɛŋi<m> ajiŋci<m> hik'udeŋi<m> kareŋi<m> ka'k'ci<h>
 kogit'ci<r> momt'ci<r> nurapek'ci<r> ogureŋi<m> ol'ci<k>
 sogomjci<m> siŋyɛŋi<h> tip'ci<w> tolmeci<k> čudini<k>
 čəŋgci<p> 외 109개
- (10) kaič'ŋi ~kaič'ui(기계충)<p>(가위) : paie<wrr> k'inbait'ol<r>
 pait'imesək<k> samp'ai<pp>(바위) : saisaraŋ<p> s'ai<rp> s'aije<p>
 (사위) : kəmundonj'ai<w> noranjai<k> hinjai<k>(자위)

28) 형태소 경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생산적으로 일어난다.

k'wəŋ<h4kk3rm> k'wəi<hhk> k'wəŋi<h3k> k'oŋ<kk> koi<p> k'oi<kw5ppr>
 k'əŋ<m>; k'o'i<hhp3r> k'oŋ<h3k11w5p13r6m11> yəlk'oŋ<hkwx3p5r6mm>; kusət'o'i
 <p> namut'o'i<h> pap't'o'i<wwp> tət'o'i<wp> tambət'o'i<p> ~ kit'o'ŋi maja't'a
 <h> pap't'o'ŋi<kk> tambət'o'ŋi<p> tɛgarit'o'ŋi<p> tət'o'ŋi<h> tət'o'ŋi<ppr> t'oŋi
 <m> yənt'o'ŋi<k> čəlgut'o'ŋi<p> čət'o'ŋi<kk>

(10)은 기원적으로 순정의 ‘-이’가 아닌 ‘가위, 바위, 사위, 자위’ 등의 어사들에서 ‘wi>’의 단모음화에 의해 /ai/ 연결체가 얻어진 예들로 움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재자음이 없으면 이 지역어에서 움라우트나 축약이 일어나지 않고, 순정의 ‘이’가 아니면 움라우트의 동화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두만강 유역어와 무주촌 지역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다.

3. 개재자음이 있는 경우

3.1. ‘아-애’ 움라우트

그러나 개재자음이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1) ač^hegi(가지)<hwpr>; haburebi<hhkwpr> hoburebi<r>; horebi<kpm>; hebaregi<pm> hejebi<p>; iyegi<hp> iegih<r>; kadegi<k3pr>; kalmegi<kw>; kannanegi<wpprr>; kač^hebida<hk>; kajemi<hkwm>; kiwejibi<ww> kiejip<k>; konegi<hh> todokk^oyeŋi<m> saŋk^oonŋi<m> suk^oonŋi<m> suk^oonŋi<m>; kunyeŋida<kkw>(고양이); k^oomč^hiullegi<ww> k^oonč^hiullegi<h>; k^ooregi<m> k^ooreŋi<km>; k^oopt^hegi<hwp3>; kəmdegi<wpprr>; makt^hegi<kw>; maŋt^hegi<h3k>; moreŋirago<pm>; murambegi<kw> muraŋbegi<k>; nap^handegi<kk>; nuŋgepi(진눈개비)<m>; nuŋk^oopt^hegi<hkm> nuŋk^oepⁱ~nuŋgebi<ww> nuŋgebi<r> nuŋk^oopt^hegi<r>; olč^hε(i)guna<r> olč^hεŋi<hk>; orebi<hhkkpp>; peč^oobegirel<wpprr> čobeginda<w>; polt^hegi<hhk>; polč^hegi<pr>; pusut^hegi<hkpr>; p^hodegi<kpp>; p^hegiri handa <kwrr>; p^hek^hiřel<kr>; p^hεŋi<wp>; samt^hemi<kwp3rr>; sank^ookt^hegi<hkpr>; seregi<w> siregi<wr>; sogomŋeŋi(고추잠자리)<km>; sonegi unda <hhkpr>; sungillegi<pr> suŋk^hillegi<r>; s^haregi<kwpm>; s^hemi s^hamən<wwp3>; seegi<wr>; siŋnyeŋi<hwmm> siŋnyeŋi<m>; tolč^hegi<kwr>; turumegi<kw>; yəbult^hegi<wr> yəburegi<w>; čant^hemi<hk> čent^hemi(하루사리)<h>; čemegi<kwp> temegi<k>; čebilli<hkwwp> čebifallo<r4>; čεgemi~(čagemi)~čagam~čedireŋi<kkk> čεgemi~čagemi(겨드랑이)<hh>; čεŋgi<krmm>; ebi<k4wp3r> acbiya<m>; egi<hkkwwp3rrm6>; egiŋe(머느리)<kwrr>;

(11)은 개재자음이 [-coronal]이면서, 북수 지역에서 움라우트가 일어난 예들이다. 그리고 100여 개의 어사들이 각 지역별로 달리 실현되고 있다.²⁹⁾ 이상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지점 전체에서 ‘아-어’ 움라우트는 활발하게 실현된다.

(12) hek'yo<kwm5>; hɔŋgeŋbukt'o<mm>; kɔŋbeni<k> kɔŋbyəne<k>

(12)는 한자어 ‘학교, 함경북도, 강변’에서 움라우트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특히 이 예들에서는 무주촌 지역어에서의 움라우트가 절대적으로 우세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부 방언권에서 언중들과의 친숙도에 따라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음에 반해 두만강 유역어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⁰⁾

(13) ㄱ. medi<hrm>(마디); peŋsɔri<kkwpp>³¹⁾ tibɛŋsɔri<k> tiribɛŋsɔri<w>
(甞); teryəni<kkp>(다리미)

ㄴ. madi<krwm4> soŋk'uraŋmadi<pwm> soŋk'araŋmadi<r> sommadi<hkrm>;
muripmadido<p> murummadi<p> tɛŋgaŋmadiri<kw>
tenamumadi<m>³²⁾; pyəŋsɔri<hm> peŋsɔri<kkrr>; taryəni<hwh>
taryən<k> tarinda<hhkwpp3rrm3> tarimi<wppmm>³³⁾
tariwagaŋigo<m>

(13)은 개재자음이 [+coronal]인 예들이다. (13.ㄱ)에서는 움라우트가 일어나고, (13.ㄴ)에서는 움라우트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주촌 지역어에서 움라우트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른 경우의 움라우트는 무주촌 지역어에서 활발하게 실현되는데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움라우트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개재자음 [+coronal]이 남부 방언권과 두만강 유역어에서 다른 제약조건임을 시사한다.³⁴⁾

29) 그 실현 양상은 회룡봉 6(4), 밀강 25(18), 월청 18(16), 북흥 21(21), 로파 20(19), 무주촌 28(24)개이다.(괄호 밖의 숫자는 총 출현 이휘수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실현된 어형 숫자이다.)

30) 남부방언에서 이 현상은 이병근(1971), 이광호(1977), 소강춘(1989) 등에서 많이 지적된 현상이다.

31) 회룡봉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pyəŋsɔri]를 사용하고 있다.

32) 월청의 80대 노인들은 [p'emmodi]를 사용하고 있다.

33) 드물게 [tɛrimiro]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개재자음의 제약을 정밀화하기 위해 [-coronal] 중에서 순음, 연구개음, 접자음의 순서로 음라우트를 외면하는 예들을 제시한다.

- (14) čami naonda<h4kkrr> (čamidu nat'a)<h>(기미) čemi<ppw>;
(k^hoolgami)<m>

(14)는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순자음이 개재된 예들에서 음라우트를 외면한 어사들이다. 그런데 무주촌에서 실현되고 있는 [k^hoolgami]는 남부 방언권에서 사용되는 '올가미'형이 제보자들의 어린 시절 언어로 남아있는 어휘다. 즉 제보자들이 어른들은 '올가미'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지금은 '몽노이'를 사용한다고 하는 증언에서만 1회 사용되었던 어형이다. 따라서 이 형태는 제외된다.

그러면 남은 형은 표준어의 '기미'를 나타내는 [čami~čemi]의 교체형만이 우리의 논의를 기다린다. '기미'는 [čim]<m> [čimi]<hw> [kəmi]<kpw> [čami]<hhkr> [čemi]<wpp>형으로 교체를 보이고 있다. 음라우트를 외면하고 있는 [čami]는 주로 회룡봉과 밀강에서 실현되고, 음라우트가 일어난 [čemi]는 월청과 북흥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다.³⁴⁾

- (15) ㄱ. hebaragi<hppr>; kadagi<kk>; maŋt^hagi<k>; mu': ip^ha'gi<pp>;
p^hi'nagi'(조)<h>; sonagi u'lme<kw>; sonakp'i<hwpr>; turuma'gi<r>
čema'gi<kr>; aʃira'ŋi<hwwpprr> aʃira'ŋi<kw>; siŋnya'ŋi<wmm>
siŋnyaŋi<m>
ㄴ. hebaregi<pm>³⁶⁾; kate'gi<hhk3r3pp>; maŋt^he'gi<h3kk>³⁷⁾; ip^he'giya
<r>³⁸⁾; sonε'gi<hkkpr>; sonε'kp'i<k>; turumεgi<kwrm> čeme'gi
<kw> čeme'k<k>; aʃireŋi<m> aʃireŋi<m>; siŋnye'ŋinga<hwm>
siŋnyeŋianinga<m>

34) 최전승(1989:227-233)에서 1930년대 북부 방언자료를 통해 개재자음 [-grave]에 대한 제약이 무시되면서 음라우트가 일반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35) 이를 통해 두만강 유역어들도 회룡봉, 밀강과 월청, 북흥, 로과의 지역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36) '해바라기'의 다른 형태는 hegaburi<hk> hegeburī<hk> hegeburε<w> hejabul<w> hejaburi<wpr> hejaburε<w> hejebi<p> hejeburi<k>와 같다.

37) maŋt^ha'ŋmal<h,r>(영터리 말)의 '땅탕+내기'의 구조를 갖는다.

38) '앞'의 다른 형태는 ip^hu<r> ip^hi<kr> ip^hari<km>이다.

(15)는 연구개음 ‘ㄱ, ㅇ’이 개재되는 음라우트 환경의 예들이다. 음라우트를 외면하는 (ㄱ)과 동일한 환경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나는 (ㄴ)의 예들을 통해 연구개음이 개재된 환경에서의 음라우트가 순음이 개재된 경우보다 음라우트를 외면하는 어사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³⁹⁾

(16) kamgi<hrm> kanggi<wwkkprmm>; siŋgaggiro<mm> ŋiŋgaggi<mm>;
seja'ŋgi<pr>(장고)⁴⁰⁾; naŋgi<h4k7w6p4r22m3>⁴¹⁾; č'akk'aggi<kwpr>

(16)의 예들은 [-coronal] 자음이 두 개 이상 개재된 예들이다. 이들에서의 음라우트 외면 현상은 훨씬 두드러진다. 월청 지역어에서 [ne'ŋgi] 한 예만이 이 환경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두 자음이 개재되면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선행시기 Kazan 자료에서 용언 어간에 ‘-기’가 연결되면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광충구(1994:126)의 지적을 상기해 체언에서도 /ki/가 연결된 형태는 음라우트를 외면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론적인 제약보다는 음운론적인 개재자음의 특징으로 이 현상을 처리하려 한다.⁴²⁾ 따라서 남부 방언권에서의 음라우트는 개재자음이 [-coronal]이기만 하면 순음이건 연구개음이건 큰 차이가 없고 자음의 숫자와도 무관하지만, 두만강 유역어에서는 [-coronal] 중에서도 순음보다는 연구개음이 강한 제약성을 갖고, 자음 연속체가 오면 음라우트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려 한다.

(17) ㄱ. kamagi<kpprr> k'amagi<hhww>; pak'i<hw3prmm>;
pa'ŋgi<kwpprr> paŋgu(고)<k>; sa:magi<hkpp> samagu əps'o<km>
samakt'egə<k> samagme't'ūgi<r>(곤충); sa:magi<hkkw>
samagi<wpr> samak<rr> (점); taŋnagi(당나귀)<m>;

39) 이 환경에서 한번만 나타나는 예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me's'agi(벨기)<w> əŋdeŋma'gi<r> p'omuragi<r> namjaagi<m>; meŋuragi
(개구리)<p> iyagi<hp> č'okp'akk'i<h> č'o'kt'akk'i<w>; haraŋi(정지의 고향)<h>
haraŋiga <m> pa'ŋi(방아)<w> ya'ŋi(배)<r> kolbe'~kolba'ŋi(우렁)<w>

40) 북흥지역어에서 [seja'ŋgŋ]가 실현되고 있다.

41) 이 ‘나무’는 전 지역에서 'karamnaŋgi<r> kasiŋaŋgi<r> naŋgiač'i<m>
naŋgio'ŋji kelleŋa<r> naŋgit'a'lgigu<r> naŋgit'e<r> p'o'ŋnaŋgi<h> č'amna'ŋgi
<h>'와 같은 종류의 어사들에서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

42) 후자는 (15)처럼 음라우트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saginda<kp>(친구); ka:bi<pr> kwabi<p>(과부)⁴³⁾
 ㄴ. k'amagwi<k>; pak*wi<hkkw>; pangwi<p>; t'aṅnagwi<w>

(17)은 동화주가 순정의 /i/가 아닌 /wi, u/인 어사들이다. 이들에게서 올라우트가 실현되지 못하는 개재자음의 제약 때문이 아니라 올라우트 규칙과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규칙의 적용 순서의 문제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밑강에서 [sa:məgi]가 실현되고 있어 표면음성형에서 [i]를 가지게 되면 올라우트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⁴⁾

(18)ㄱ. kap*in muri(고인)<hw>; kabyə'pt'a(가엾다)<h>
 ㄴ. kəp'e't'a<hkwp3rr>, kəp'i'nda<k4wpr>; kəbanasə<p> kəbounjime<m>
 kəbuk'a<m> kəbə's'e<h> kəgapt'a<p> kəgok'o<m> kəgopk'o<m>

(18)은 용언의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는 예들이다. 올라우트를 외면하는 (ㄱ)의 예들보다는 올라우트에 투명한 (ㄴ)의 예들이 훨씬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19) kač*abi<hkkwpp> kak'abi<k> kak'ai<hkkwr>; kapč'agi<kkppr>;
 mač*abi yəsə<p>; salla:ŋi yərərə<wrr> salla:ni<p>; taptabi<k82>;
 č'amč'ami<p>

(19)는 부사파생접사가 붙은 경우이다. [kač*ebi]<hkwp>를⁴⁵⁾ 제외하고는 올라우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3.2. '어-에' 올라우트

(20) emi<h8k6wp5r3m>; haburemi<hhpwrrk> kasiemi<h> olč*isemi<hrpk>
 olč*is'emi<k> olč*isiemijil<k>; kudegi<hkkwp3r4>; kuregi(노래기)

43) '과부'는 주로 '하부레미'로 실현되지만 [kabu]<wp> [kabut'ek]<mm> [kwabu]<hh> 등도 실현된다.

44) 최전승(1989:232)에서 동화주가 순정의 '-이'가 아닌 이중모음 '의'에서 단모음화된 [i]에 의해서도 올라우트가 일어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예 : 네비, 너리기, 내비, 죄리, 회미 등)

45) '가까이'는 [kak'abun'<k3r> [kak'ak'e]<kp> [kak'apt'a]<kkwrp3> [kač*abun'<ppwrm> [kač*ana]<p> [kač*apt'a]<hkkwppmm>와 같이 교체를 보이고 있다.

<kwpr>; k'uregi<w> sok'uregi<pm> swek'uregi<p> swek'aregi
 (입마개)<w> sek'uregi<r>; k'esiremi<r> k'isiremi<p>; kabuJegi
 <hhk3w> kamburegi<k> kambuJegi<k>; nudegi<kkww>; pabuJegi
 <hp>; puegi<km>; pusuremi<r> pusiremi<wpr>; tips'egi t'inda<kk>;
 tudegi<pm>; tuduregi<hwwpmm>; tut'e'bi<hkpr> t'uk'e'bi<km>;
 čaburemi<wrr>; čaŋk'udegi<hw> čaŋk'uregi<hkpm>; øŋdegi<hwp>;

(20)은 개재자음이 [-coronal]이면서, 북수 지역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난 예들이다. 그리고 이 예들에 추가해서 70여 개의 어사들이 지역별로 달리 실현되고 있다.⁴⁶⁾ 여기서도 음라우트의 생산성은 확인된다.

(21) sek'eqirago<hprm> sek'yəŋ<kwprm> sek'əŋ<k>; t'e'gyəŋ<k>
 t'e'geŋigu<hkww>⁴⁷⁾; heŋŋigan<mm>; čepmigi(精米糶)<k>;
 segyu(石油)<k>;

(21)은 한자어에서 음라우트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에'에서의 한자어 음라우트와는 달리 '어-에' 음라우트는 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22) ㄱ. yəmi(呑)<hh> əndəmi(부뚜막)<kp> : tut'e'bi<w>; nəbi<hhk4>
 ㄴ. kuresye:mi<w> kures'e:mi<k> sye:mi<w>⁴⁸⁾ əndəmi<w3>⁴⁹⁾;
 tuk'e'bi<r> tut'e'bi<hwpr>

(22)는 개재자음으로 순음이 오한 예들이다. '수염'의 [yəmi]는 회통봉의 노년층에서 '수염'의 존칭어로 사용되고 있다. '부뚜막'은 [əndəmi]<k>이 단독형으로도 실현되지만 [əndəmi]<w3>도 단독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꺼비'는 [tuk'e'bi]<r> [tut'e'bi]<hwpr>로 실현되고 있어 대부분 음라우트가 실현되고 있다. '넓이'는 일반적으로 [nəlbido]<krpm3>처럼 원래 /nəlp+i/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형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들에 대해서 기저형에 제약을 가하는 설명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함 표면음성형으로까지 [selgi]<hwp>처럼

46) 그 실현 양상은 회통봉 3(2), 밀강 11(10), 월청 6(6), 북흥 5(5), 로파 18(9), 무주촌 25(17)개이다.

47) '거울'은 작은 것은 '석경'이고, 몸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은 '체경'이다.

48) '수염'의 예는 앞 (1-2)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49) 이 어사의 뜻을 분명히 하는 [kaməndəmi]<w> [pusinəndəmi]<k>등도 있다.

실현되는 예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⁵⁰⁾ 다만 [nəbi]와 [nəlbi]의 지역적 분포가 희롱분, 밀강과 월청, 복흥, 무주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 (23) ㄱ. k'ək'əgi(팔더듬이)<w>; k'ərəgi(소입마개)<hw>; nudegi<hp>;
 susuk'ək'i<k>; yək'i<h3k5wpr3m4>; p'əgi<hpp>; munč'ə:gi<p>;
 ugdəgi<pr> xikt'əŋi<h>
 ㄴ. susuk'ek'i~sisik'ek'i<k>; ek'i<r>; p'egi<k3w4pr> p'ogi<wpprk>;
 mun'jegi<hp>

(23)은 연구개음이 개재된 예들이다. '소입마개, 누더기'는 (20)에 제시된 것처럼 월청, 복흥, 로과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난다. '여우'는 로과에서만 [ek'i]로 한번 실현되고 나머지는 [yəsiraŋ]<pr> [yəsɯ]<mm> [yəu](신) <hwp>로 실현되고 있다. '뿔찌귀'는 [munč'ə:gi<p> [mun'jegi<hp> [mungəlge] <hm> [munč'əps'i] <p> [munč'əps'i] <m> [č'əps'i] <m> [munč'əlgi] <wr>로 실현되고 있다.

'포기'는 [p'ogi, p'egi, p'əgi]의 이형태를 보이는데, 이 중에서 [p'egi]가 가장 활발하게 실현된다. 이들의 변이형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p'ogi > p'ögi > p'egi'와 'p'ogi > p'əgi > p'egi'의 도출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오-외' 음라우트와 고모음화로 단계적인 변화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p'əgi]형이 실현되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후자는 원하는 변이형들이 다 얻어질 수 있지만, 'p'ogi > p'əgi'의 변화를 원순성의 약화로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곽충구(1994:277)에서 'uy > iy, oy > əy'의 비원순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후자의 유도과정이 세 교체형을 얻는데 적합하다.

'x덩이' 형태는 주로 [hikt'əŋji] [kogit'əŋji]처럼 'x덩지'형으로 실현되고, 음라우트가 일어나는 경우는 [hik'udeŋi] <m> [kogit'e'ŋi] <r> [surəŋk'udeŋi] <m> [əŋdeŋi] <hw>만 실현되고 있다.

(22)와 (23)의 비교를 통해 '어-에' 음라우트에서도 연구개음이 개재된 경우에 음라우트 비실현형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4) ㄱ. yəŋgisigi~əŋgisigi(기스랑)<r>; səŋgiri<hwpr>
 ㄴ. čəŋgi<rmm>

50) 무주촌에서만 [sinsəlgi]로 실현된다.

(24)는 (16)처럼 개제자음이 두 개인 경우인데 (ㄱ)에서는 음라우트가 일어나고, (ㄴ)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아-에' 음라우트에서 보다 음라우트가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다.

- (25) *yægida*<p> *əps'uiyægimən*<h>
 (26) *təbi*<hkwwrrm> (*təwi*)<k>; *yəbida*<hk4p4m>; *yəgi*<mm>; *tyəgi*<w>;
təgisə<k>

(25)는 용언에서 음라우트를 외면하는 예들이고, (26)은 역사적으로 '위, 의'와 같은 이중모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사들로 음라우트를 외면하고 있다. 이들에서도 '아-에' 음라우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3. '오-외' 음라우트

- (27) *sant'ök'irəl*<m>; *čip'ögi*<m>; *sögeŋ*<hrp>; *hiktöbigiga tö:t'a*<m>⁵¹⁾

'오-외' 음라우트는 두만강 유역어와 무주촌 지역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sögeŋ*]은 두만강 유역어 세 지점에서 실현되고 있지만, 회룡봉과 룡과에서는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밀강에서 [*swe:gyəŋ*]과 [*swegyəŋ*]이 실현되고 있다. 아무튼 이 어사를 제외하고 '오-외' 음라우트는 두만강 유역어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⁵²⁾

필자가 밀강과 월청을 조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kogi*](肉,鮮)를 사용하지만 함경북도 갑산과 명천에서는 [*kögi*~*kegi*]를 사용한다는 증언을 들었다. 제보자들은 '오-외' 음라우트에 의해 두만강 유역어와 함경도 내부 지역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28) *höbinda*<m> *höbinənda*<m>; *k'öp'inda*<m> *köp'egaŋgoit'a*<m>

(28)은 용언의 예들이다. '후비다'를 의미한 [*höbida*]는 [*hebi'wesə*]<kwp> [*hebi'nda*]<pp> *häbiwasə*<hhwppr> *häbigu*<p>로 실현되고 있다. 이 변이

51)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töbe*~*töbi*]<m>로 실현되기도 한다.

52) 광충구(1994)에서 선형시기 육진 지역어에서 이 현상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재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형들의 실현은 'hubi > hobi > həbi > hebi'와 같은 유도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u > o'는 교체현상으로 설명되고, 'o > ə'는 비원순화로 설명될 수 있다. '고이다'를 의미하는 [k'öpʰinda]는 (19.ㄴ)에 제시된 바와 같이 [ke pʰinda]로 실현되고 있다. 개재자음이 [+coronal]의 'ㄹ'이면서도 밀강 지역어에서는 [čö:ri]<k> [čö:ri]līgənʃinda<k> [pədilčö:ri]<k>처럼 음라우트가 일어나는 예들이 있다.

3.4. '우-위' 음라우트

(29) kügyəŋəl<mm>; süyəmira<m> kʰostüyəmiʃe<m> süyəm<m>;
s'əndüŋirəl<m>; nübiʰodəgi<m>; pertügiʃiyo<m>; tüyəmiʃi<m>

'우-위' 음라우트도 '오-외' 음라우트와 마찬가지로 무주촌에서는 생산적으로 실현되지만, 기타 지역어에서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로파의 제보자 최수영 씨가 '사마귀'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samaŋme't'ügi]로 한 예에서 발화했다.

3.5. '으-이' 음라우트

(30) ㄱ. musi'gi<h5wwp3rrmm> mi'sigi<kp>(무엇); šinibi<m>(시누);
ti'birifanda<kw>
ㄴ. mu'sigi<hhk6wwp> mu'sigi<hpr>; s'i'nibi<hhkkww> s'i'nubi~
si'nubi<w>; tibi'<hk3p> tubu<hk> tubi'<h> ti'bu<w>

(30)은 '으-이' 음라우트의 실현을 보이고 있다. '오-외', '우-위'에 비해 상당히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다. 이것은 남부 방언권에서의 음라우트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충남 서천지역어의 19세기 말 문헌자료에서는 활발히 실현되지만 동일지역의 현대 방언자료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보다면, 공시적으로 남부 방언권의 음라우트보다 두만강 유역어의 '으-이' 음라우트가 생산적임을 알 수 있다.⁵³⁾

(31) tadimi<hkkwr6m>

53) 권병로(1987)의 무풍지역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참고 1993 참조)

(31)은 개재자음이 [-coronal]이면서도 음라우트를 의면하고 있다.⁵⁴⁾ 이에 반해 아래 (32)의 예들은 이 지역어들에서 '으-이' 음라우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 (32) ㄱ. tiribadabonda<h3k3wwp4r> tirit'abofji<r4>; tiri'gu<wrm>; tudi'rinda
<wp5r3>; tidi'nda<kkrr> tideyafənda<r>; tirigada<r>;
ti'rit'erimu<p>; mə'ri ti'ride'yafji<p>; to'rik'e ti'rigo(자루하다)<w>
ㄴ. tidinda<kkp7> tidinin<k> tide'ra<hw>

(32)는 음라우트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coronal]의 자음인 'ㄹ, ㄷ'이 개재되면서도 음라우트가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⁵⁵⁾ 아이들 놀이인 [tidijɛ] <p>가 의태어들이 [tidija'ŋ] <pk>과 [tidija'ŋ] <wrm>으로 실현되고 있고, 채언에서도 월청에서는 [tiribeŋse'ri](호리병), [me'niri]가 실현되고 있다.

- (33) kəndigi<m> nudigi<mm>⁵⁶⁾ t'ərigi<hhkk> əlgibit<m> : p'əndigi<m> :
perigi<hhkkpr> keberigi<hh> kuŋdiŋi<rm> moŋdiŋiro<k> čudiŋi<hk>

(33)은 원래 'ə+i', 'e+i', 'u+i'의 구조체이다. 그런데 출력부에는 모두 'i+i'의 형태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이들은 각각 'ə > e > i'와 'u > ü > i'의 음라우트와 고모음화를 통해 'i+i' 음성형을 얻게되었다. 문제는 무주촌 지역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u > ü' 음라우트가 비생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u > ü' 음라우트가 선행시기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⁵⁷⁾

4.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라우트

4.1. '아-애' 음라우트

- (34) ㄱ. hek'yo<wm6> ise'gi p'inda<kw> kanjeŋi<wm> maŋt'e'gi<h3kk>

54) 첩어인 [s'ims'imi] <77p>도 음라우트를 의면하고 있다.

55) 줄고(1995)의 동편제 판소리 자료에서도 'ㄹ'이 개재될 경우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다.(이병근 1971, 최명옥 1989, 박충구 1994 참조)

56) 물론 [nudegi] <hp>, [algebisi] <p> 등도 실현되고 있다.

57) 박충구(1994)에서 'u > ü'와 'u > ʊ'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murambe'gi<kw> muraŋbe'gi<k> mɛ:mi<hwpm> saremi <rm5>
 sonɛgiu'nda<49k> s'onɛgi<44m> s'e'midofaŋi<w3p> tołč'ɛgi<k5w3pr>
 t'ɛgi<kwpprrm3> yə'ŋgɛmi<wp4> čaŋj'e'gi~čaŋja'k<31w> čaŋ'e'gi
 p'e'ji<03p> č'h'ɛmbisi<rrm3>

- ㄴ. ke'ɛmi(경암이)<h> s'oks'e'mi(길계멍기는 것)<h> takč'isɛgi(나물)<h>
 takč'e'ŋi<h> č'h'ɛsigirage<h> : sədebiɾa<kk> toba'kč'ɛŋi<k>
 tonjəmbɛgi(두번째 새끼)<k> č'a'mbitč'ɛŋik<k> : hobe'gi<w>
 ka'magi~k'a'mɛgi<w> kolt'ɛŋi<w> pe'rɛgi<w> to'ŋgebi<w>
 č'o'ŋgɛgi<w> : is'e'ŋigo<p> t'omɛgi<p> yəlɛgi<pp> čaŋsɛmi<p>
 č'ü's'e'mieda<p> : ɛɾɛdirɛ<r> ip'ɛgiya<rr> pebi<r> tobe'gi<r>
 tołč'ɛqira<r> yəłk'oŋbebi<r> : hans'ɛjidoŋje<m>
 hanjəŋmarin'ŋgɛgiə<m> taramat'ŋgebiyə<m> tarananəŋgebiyə<m>
 hɛgisł't'a<m> komɛgi t'əjət'a<m> koŋjɛŋije<m> kəmjɛŋi<m>
 məłk'ire'gi<m> nač'ɛgi tuk'əpt'a<m> pəɾemi pəɾə<m4>
 paŋaŋhobɛgigo<m> pəɾɛgi<m> pusekč'ɛgira<m> p'yəŋbe'gigo<m>
 sagič'ogɛgira'go<m> soŋk'urɛgira'je <mm> sut'ɛgik<m>
 amt'ɛgik<m> səmjɛŋje(삼형제)<m> tamurɛgira'je <m>
 tuħaɛŋi(두냥)<m> t'ore'ŋirago(자연)<m> tönjɛŋigo<m> unduŋjɛŋi
 <m> yənčɛŋije<mm> č'ogɛgira'go<m> č'onjɛŋi<m> šigimč'ɛŋirago
 <m> široɾɛgič'əɾəm<m> široɾɛŋi<m>

(35) ㄱ. mək'i'łt'ɛ<kkp3m> pək'iwa't'a<kkwwppm3> tɛŋgi'da<k5wp3rrrm6>
 čobegi'nda<wpprrr> čɛŋimən<rm4> čɛp'i'nda<kk> čɛp'iwa't'a<p>
 čɛp'yət'a미<p> ɛŋgi'nda<hkrrm>

- ㄴ. kit'a'ŋmək'ige<h> mək'igiso<hh> : s'e'gyək'una<k> s'e'yət'a<k>
 s'e'gindammariyə<k> kek'i'nda<k> : hikt'e'birifəsə<w> pəp'ihaj'i<w>
 : mək'i'nda<p> čɛŋgi'ji(잠기다)<p> : kač'e'bie<r> p'umebe'gi'ni<r>
 tɛrinjəŋinin<r> čigudɛŋgi'ji<r> : mək'inik'a<m> pomɛgi<m> pɛgi'nda
 <r> pɛgiŋgə<m> čabadɛŋgira<m>

(34)는 체언에서 (35)는 용언에서 실현되는 음라우트의 예들이다. 이 예들만 가지고 본다면 [-coronal] 자음이 개제되면 음라우트가 생산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서 음라우트를 의면하고 있는 어사들이 화통봉 실현형 9(7) 비실현형 33(18), 밀갈 실현형 16(8) 비실현형 37(31), 월청 실현형 20(16) 비실현형 32(29), 복흥 18(13) 비실현형 38(34), 로과 실현형 15(11) 비실현형 52(45), 무주촌 실현형 57(35) 비실현

형 46(34)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태소 내부에서 옴라우트의 실현형과 비실현형의 빈도수와 형태소 경계에서의 실현형과 비실현형의 빈도수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형태소 내부에서는 옴라우트 비실현형의 숫자가 적게 나타나면서도 순음과 연구개음이 개재자음 제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형태소 경계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차이는 없고, 두만강 유역어와 무주촌 지역어에서의 옴라우트 실현형 대 비실현형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무주촌 지역어에서는 옴라우트가 일어난 어휘와 일어나지 않은 어휘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두만강 유역어에서는 옴라우트가 일어난 어휘들이 일어나지 않은 어휘들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아-에’ 옴라우트가 실현되기는 하지만 생산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용언의 경우는 회룡봉 실현형 4(3) 비실현형 14(9), 밀강 실현형 15(9) 비실현형 16(9), 월청 실현형 6(5) 비실현형 3(3), 북룡 실현형 14(7) 비실현형 13(9), 로과 실현형 8(5) 비실현형 10(8), 무주촌 실현형 22(9) 비실현형 0(0)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언에서는 체언에서보다 옴라우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무주촌의 경우는 입력부 조건이 충족되면 거의 예외 없이 옴라우트가 일어나고 있다.

4.2. ‘어-에’ 옴라우트

- (36) ㄱ. hap'e'mi<hkr> he'ŋi<hk> ke'bina<k4> pegi<kwpr4m3>
 peŋgafesə<km> segeŋinun<p> sogeŋirago<p3m> sŏ'geŋi<r>
 sek'eŋigo<hr3m> čabure'mi onda<kkwrr> č'egeŋigo<m>
 t'e'geŋirago<w>
- ㄴ. ke'binasə<h> kombobe'ŋiŋi<h> kube'gi<h> kuse'gi<h> k'isire'mi
 <hh> nuns'e'bi<h> soŋnunsebi<h> paŋse'girago<h> sure'ŋiga
 (수량어)<h> teiri(정일어)<h> tigeŋiŋe<h> yalt'e'p'eŋi<h> yə'ŋsegi
 (이름)<h> č'e'segi<h> : ke'gi<k> kuse'gi<k> k'isire'mi<k> me'ŋi
 č'arin saram<k> nuns'e'mi<k> pusi'remi<k> soŋbegi kwanada<k>
 todure'gi tonnungə<k> : ibe'gi<w> ke'gi<w> kube'gi<w>
 me'ŋi<w> mənse'gi <w> paŋsegi<w3> tip'e'ŋi<w> : amt'e'bemi
 abəmi<p> ha'nk'ubegida<p> kuse'gi<p> k'isiremi<p> meŋi<p>
 mu'ŋt'e'giro<p> nunso'geŋiŋe<p> : k'əsire'mi<r> manure'peŋi<r>
 mep'eŋida<r> me'ŋi<r> soŋbenigo<r> tət'ubegigo<r>

yəngi'sigi ~ ɛŋgisi'gi <r> čamk'ure'giji <r> : kusegigo <m>
 mepič'alluk'o <m> pešilk'ehanda <m> toreŋi <m> tureŋi <m>
 yalməŋindi <m> čibusegi <m>

- (37) ㄱ. megi'nda <h3k7w4p8r6m3> mek'inda <kkm3> nengigo <넝기고> <krmm>
 pegisilt'a <wpr> p'ek'idedi'je <hk3wwpr3mm> tɛ'ŋget'i <hw>
 ㄴ. kep'i'nda <겹하다> <k> mege'yadenda <p> seŋgi'nda <섬기다> <p>
 s'egi'nda <p3> keronhegit'ɛni <m> mek'iširimən <m>

‘어-에’ 음라우트는 ‘아-에’ 음라우트보다 훨씬 우세하게 실현되고 있다. 체언의 경우는 회룡봉 실현형 19(18) 비실현형 16(10), 밀강 실현형 18(14) 비실현형 14(9), 월청 실현형 13(9) 비실현형 5(5), 북흥 실현형 11(7) 비실현형 14(11), 로과 실현형 18(12) 비실현형 21(19), 무주촌 실현형 15(13) 비실현형 16(14)으로 나타나 무주촌에서는 ‘아-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두만강 유역어의 경우는 북흥과 로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어-에’ 음라우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아-에’의 경우도 비슷하다.

용언에서는 회룡봉 실현형 5(3) 비실현형 1(1), 밀강 실현형 14(6) 비실현형 3(1), 월청 실현형 8(4) 비실현형 1(1), 북흥 실현형 17(4) 비실현형 1(1), 로과 실현형 12(4) 비실현형 2(2), 무주촌 실현형 11(7) 비실현형 2(1)로 나타나 ‘어-에’ 음라우트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에’ 음라우트와 평행하게 음라우트가 실현되고 있다.

4.3. ‘오-외’ 음라우트

- (38) palt'öbi ič'e <m> todögidānda <m> togut'öŋirago <m> susidögi <m>
 čelgut'öŋirago <m> čip'ögi <m>
 (39) k'öp'inda <57m> öŋgi'inda <58m> öŋgyət'a <57m>

‘오-외’ 음라우트는 훈춘의 회룡봉에서 실현되는 [tət'ö'ŋi, sögi]를 제외하고는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주촌 지역어에서만 일어난다. [sögi]는 회룡봉의 80세 이상의 노인들만 사용한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는 ‘오-외’ 음라우트의 통시적인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그러나 무주촌 지역이라고 해서 이 음라우트가 생산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동일한 환경에서 체언에서는 12(10)개, 용언에서는 7(5)개의 예외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4.4. '우-위' 음라우트

- (40) kurtümik'igo<m> mot*ügi<m> nübip'odegi<m> s'aᅇdũqiräl<m>
taᅇsũgirago<m> šisũgije<m>
(41) čũginda<wm4>

두만강 유역어에서 '우-위' 음라우트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다만 로과에서 [čũgirago]의 예가 한 번 실현되었으나 이는 최수영 씨의 발화에서만 나타났다. 보조 제보자인 최수영 씨는 그 부친이 남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우-위' 음라우트는 두만강 유역어에서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언에서는 7개, 용언에서는 2(1)개의 비실현형이 조사되었다.

4.5. '으-이' 음라우트

- (42) ㄱ. irimi<kwwprrm3> musi'gi<h3r4mm> peri'gi<hhkkwpr> sasimmi
<krw> t'ærigi<hhk>
ㄴ. ki'mi it'a<h> : k'imi<k> čudi'i<k> : ma'ndigigo(만두)<p> : kuᅇdiqi
<r> makt'igi'<r> : karimirago<m> korimi<m> nudigi<mm>
oᅇt'iᅇqi<m> porimiᅇje<m> puširimiraᅇje<mm> p'æ'ndigi<m>
č'odibi<m>
(43) ㄱ. migini<m6> tiribadabonda<k3pr4> tiri'gu<wr> tudirin'igi<wrr>
ㄴ. nip'inda<m> ti'k'isilt'a<pp> tudigime<r>

체언에서는 회통봉 실현형 8(4) 비실현형 8(6), 밀강 실현형 7(6) 비실현형 16(15), 월청 실현형 4(3) 비실현형 9(8), 북흥 실현형 3(3) 비실현형 18(14), 로과 실현형 10(5) 비실현형 8(6), 무주촌 실현형 15(11), 비실현형 9(9)로 나타나고 있다.

용언에서는 회통봉 실현형 0(0) 비실현형 1(1), 밀강 실현형 3(1) 비실현형 3(3), 월청 실현형 2(2) 비실현형 4(4), 북흥 실현형 3(2) 비실현형 4(3), 로과 실현형 8(5) 비실현형 2(2), 무주촌 실현형 8(5) 비실현형 1(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으-이' 음라우트도 '아-에', '어-에' 음라우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결론

국어 음운론에서 음라우트 현상은 근대국어의 통시적인 모음체계 변화과정을 정밀화하기 위해서 연구되기 시작해서, 음라우트형의 표기를 위한 연구와 방언자료를 통해 음라우트 규칙의 정밀화 작업이 속속 진행되었다. 그래서 음라우트는 다른 음운현상에 비해 상당히 체계화되고 정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최명옥 교수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정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되지 못한 방언자료를 통해 더 보강되고 심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의 조사와 정리 작업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 지역을 포함하는 음라우트의 지역적 분화상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시도되었다. 두만강 유역어로 칭해진 함경도 북부지역과 연변 자치주의 남부지역어에 대한 정밀한 조사·연구는 국어의 연구자료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필자는 연변 자치주의 언어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 두만강 유역어와 압록강 유역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중국 조선어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학자들이 북한의 방언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순수 지역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화자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부족하지만 관심있는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뿐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삼으려 한다.

먼저 형태소 내부에서 개재자음이 없으면 음라우트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제약을 설정했고, 순정의 ‘이’가 아니면 음라우트가 일어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 현상은 두만강 유역어와 무주촌 지역어에서 차이를 보였다.

형태소 내부에서 개재자음이 있으면 음라우트가 생산적으로 실현된다는 기왕의 지적은 ‘아-애’, ‘어-에’, ‘으-이’ 음라우트에서 생산적이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비실현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두만강 유역어에서 ‘오-외’, ‘우-위’ 음라우트는 실현되지 않았다. 더불어 개재자음이 순음일 때보다는 연구개음일 때 음라우트에 덜 생산적이었고, ‘ㄹ’은 ‘으-이’ 음라우트에서 개재자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두만강 유역어에서도 회통봉, 밀강과 월청, 북흥, 로파가 음라우트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였다.

형태소 경계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보다 음라우트 실현이 덜 생산적이었다. 무주촌에서는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거의 대등한 정도이지만, 두만강 유역어에서는 음라우트 비실현형이 두 세 배 우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만강 유역어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정도를 따진다면 음라우트는 minor rul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형태소 내부에서부터 음라우트가 시작되어 형태소 내부에서는 major rule이 되었지만, 아직도 형태소 경계에서는 음라우트가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⁵⁸⁾ 그리고 형태소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개제자음의 제약이 형태소 경계에서는 유형화되지 못했다. 이는 음라우트 규칙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곽충구(1997), 「연길 지역의 함북 길주·명천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애산학보 20.
 곽충구(1998), 「육진방언의 어휘」, 심재기 선생 회갑기념논문총, 태학사.
 권병로(1987), 「무풍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김수곤(1978), 「현대국어의 음라우트 현상」, 국어학 6.
 김영배(1985), 「i모음역행동화와 그 개제자음」, 청파 서남춘 교수 화갑기념논문총, 창문사.
 김영배(1997), 「평안도 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김완진(1963), 「국어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도수희(1981), 「충남방언의 음라우트현상」, 방언 5.
 리운규, 안운(199), 「조선어 방언사전」, 연변인민출판사.
 선덕오 외(1990), 「조선어방언조사보고」, 연변인민출판사.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소강춘(1991) 「음라우트 현상에 의한 충남 서천지역어의 공시성과 통시성」, 국어학 21.
 소강춘(1995), 「관소리(唱)에 나타난 남원지역어의 음라우트」, 국어학 26.

58) 이 규칙의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King(1969)와 최전승(1989)를 참조.

- 소강춘(1998), "중국 무주촌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교육논총(전주대) 21-2.
- 이광호(1977), "i 모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어문학 36.
- 이병근(1971), "운봉지역어의 음라우트현상",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 이승녕(1935), "Umlaut현상을 통하여 본 모음 'ㅛ'의 음가고", 신흥 8.
- 전광현(1983), "영동·무주 접측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13.
- 전학석(1993),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전학석, 김상원(1995), "중국조선어개황", 「언어사」, 민족출판사.
- 정인승(1938), "'ㅣ'의 역행동화문제 : 그 원리와 처리방법", 한글 5-1.
- 최명옥(1980), "경북 월성지역어의 음운변화에 대하여", 신라가야문화 11.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 : 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5.
- 최명옥(1989), "국어 음라우트의 연구사적 검토
- 최명옥(1998),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 최임식(1984),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모음체계", 계명대 출판부.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전승(1989), "국어 i-umlaut 현상의 기원과 전파의 방향", 한국언어문학 27.
- 최전승(1995),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 King, R. D.(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Prentics Hall.